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씨티엔 선생님 명강의 명설교>

<2005년 10월 16일 주일말씀>

의인은 빛나라

본문 : 마태복음 13장 36-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은 다시 10월 16일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있었습니까? 선생님 역시도 섭리를 뛰고 달리며 지휘하며 바빴습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보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했습니다. 금주에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본문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상하게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나갔는데 오늘은 또 그 전에 있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주일말씀은 순서가 있는데 1년 12달 내내 순서 있게 나갑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중구 난방으로 순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흐름을 보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시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환난, 어느 때 이런 것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악 연주하는 자들도 전부다 일어나십시오.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피아노부, 밴드악단들, 경음악부, 그리고 기타 부들 모두 일어나서 연주해주시고 나

는 지휘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아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섬리역사가 황무지에서 시작되어서 서서히 꽃을 피우는 역사로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지요? 그러면 지휘를 하겠습니다.

♪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제는 주일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약속하기를 수요일에 온 사람들은 일요일에 꼭 오도록 하자고 했지요?

수요일에도 안 오고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과 요즘 새로 온 여러분들을 기쁨과 반가움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하늘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끌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로 오게 해준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아해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아해서 오게 되었고, 이미 옛적부터 말씀을 듣고 섬리사에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원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좋아해서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몇 십분 동안 듣도록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나의 설교가 아니라 하늘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아듣게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아듣게 통역을 해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뻐 즐거워해서 캐내 버리고 자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좋아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이 밭을 사야 되겠구나.’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모든 소유를 팔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화를 캐서 써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숨긴 보화다. 인간 마음속에 숨긴 보화다.” 했습니다. 마음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지옥도 천국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본문 말씀은 금주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지난 주 말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밭 이야기를 하고, 밭에 나는 곡식 이야기도 하고 그 곡식 사이에 나는 가라지, 잡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비유들입니다.

“주인이여. 밭에 곡식은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주인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물론 안 뿌렸지만 나쁜 사람들이 와서 밭에다 가라

지 씨를 뿌리고 잡초 씨를 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본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었을 때 밭에 나쁜 사람들이 가라지나 잡초의 씨를 뿌리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의도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많이 나고 잡초도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났습니까?” 하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쁜 사람들이 뿌리고 갔다. 가라지도 뿌리고 잡초도 뿌리고 갔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음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평화스럽고, 기쁨의 이상적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밭에, 그런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성장하듯이 기쁨의 알곡만 나야 되는데 원치 않는 잡초가 나고 가라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농부가 여름내 잡초 밭을 매느라고 땀을 빼고, 가라지를 뽑아내느라고 진기를 다 빼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고민, 걱정, 염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잡초를 매느라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땀을 흘립니다.

만일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씨만 뿌렸는데 거기에 잡초도 안 나고 가라지도 안 나면 농부는 정말로 팔자가 늘어질 것입니다. 가을에 가서 낫만 가지고 가서 거둬들이면 됩니다. 여름내 비료 몇 번 주고 퇴비만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잡초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더욱 알 것입니다. 어른들은 잘 깨달을 것입니다. 논밭에 잡초만 없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노는 것입니다. 비료만 술술 뿌리고 퇴비만 하면 가을에 거둬들이고 타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잡초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화평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 말씀을 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천국의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여건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마음, 악한 마음, 태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각종 각색의 불신과 불법을 행하는 것과 배반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가라지 같은 마음, 잡초 같은 마음이 계속 마음 밭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자가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고 뿌렸겠느냐는 것입니다.

“야야, 인생을 막 살아. 그리고 악하게 살아. 악한 놈이 성공하고 선한 놈은 역시 뺏기더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끝까지. 의롭게 살아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라, 끝까지.” 그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나쁘게 뿌렸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뿌리고 갔구나.”

“나쁜 놈이 누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을 말함이요, 잡초도 악한 사람을 말함이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러했구나. 그놈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우리 섭리사에 가라지들이 침범하고 뛰어들어와서 아주 눈물겨운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뿌리고 갇는가 했더니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무저갱의 사자들이 뿌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뿌려놓고 가고, 우리 섭리사에도 뿌려놓고 가서 가라지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들, 악한 자들, 잡초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치 봄에 곡식을 뿌려놓고 여름내 김 매느라고, 가라지 뽑아내고, 잡초 뽑아내느라고 허리 펴 시간 없이 있었고 땀방울에 비바람 맞으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그랬는가 하면 악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놈들이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주관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계속 그렇게 나쁜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놈들이 오면 가려내고 찾아내고, 그놈의 잡초 때문에 곡식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참 곡식들입니다. 주인이 뿌린, 하나님이 뿌리고 선생님을 보내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잡초들이 뿌리를 뺏어와서 좋은 비료와 퇴비한 것을 빨아먹었습니다. 퇴비는 역시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것들을 여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인생도 그러하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과 악한 자들은 인자가 와서 놔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저희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의인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면서 밭의 가라지나 잡초와 같이 곡식을 괴롭히는 짓을 하는 자들, 물질을 빨아먹고 나아가서는 알곡 먹으라고 곡식 먹으라고 준 비료를 빨아먹는 입장과 같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물질을 빨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심판하리라. 이들은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갇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쳐 넣어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신앙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시대가 아니니까 신랑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역시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써 빛났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애인으로, 신부로서 빛나는 시대입니다. 신부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고 신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라! 달과 같이 빛나라! 별과 같이 빛나라! 이와 같이 그 영광과 영화가 빛나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지라도 악한 자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인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악한 자, 마귀, 사탄, 악한 자, 가라지,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섭리사도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섭리사 안의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가 하면 악한 자가 뿌린 것입니다. 그 가라지 떼들이, 가라지로 활동하는 놈들이 뿌린 것입니

다.

이제는 우리를 부활시켜놨으니 전면적으로 전체가 전군이 하늘의 의로운 군인이 되어서 이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대면해야 됩니다. 섭리의 사람들이 너무 가라지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그렇게 괴롭히고 선생님을 쫓아다녀도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라지들을 선생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이 가라지들아! 이 알곡이 없는 이 가라지들을 내가 저주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노라. 양심심판도 하고 행동심판도 하니 한번 받아봐라.” 하고 단상에서 가라지들을 심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노니 너희가 복 받을 짓을 했으면 복을 받고, 화 받을 짓을 했으면 화 받을지어다. 때가 사탄수도 되었으니 심판할 만큼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판을 감행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너희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었고 불바다가 예비되었다. 너희가 만일 의로운 짓을 했으면 의로운 대가를 받아라.”

악인이 없어져야 의인이 빛이 납니다. 밭에서 잡초가 없어지고 가라지가 없어져야 곡식이 빛이 납니다.

산에 가보면 잡목이 있습니다. 잡목이 없어져야 소나무가, 상록수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소나무가 없는데 잡목을 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나무 대신 잡목이 일을 해야지. 산을 지켜야지. 잡목도 없으면 가시나무라도 놔두는 것이다. ‘에이, 이놈의 가시밭.’ 하면서 불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라도 있어야 사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황토 땅에 비가 오면 사태가 나서 산이 홀락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없을 때는 가인들이라도 남겨 놔야 됩니다. 못 땅이나 아주 삭막한 땅에 의인들이 없는 곳에는 가인들이라도 살도록 놔두었습니다(창4:16).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해로운 자에게 주시는데 만일 의인들이 사는 곳에 악인들이 있으면 마치 산에 상록수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잡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때는 여지없이 끊어줍니다.

월명동을 관리할 때도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잡목이 있으면 “잘라라. 잘라서 없애라. 잘라다가 불 때라.” 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자른 다음에 소나무에 거름을 많이 하고 부지런히 길러라.” 해서 소나무 밭이 되게 되고 소나무 산이 되게 되고, 아름다운 월명동 성지 땅이 아름답게 상록수 나무로 절경을 이루게 했습니다.

악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없애고 심판해 버려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으로 삼고 주를 신랑으로 삼고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무덤 기간을 통해서, 행악자들을 통해서, 악인들 때문에 너무 너무 모시는 생활을 못하고 나도 못 살피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덤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엄청난 사탄, 마귀, 가라지, 행악자, 잡초들을 다 뽑아 없어지며, 더욱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만이 남아 있

습니다.

환난 때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봄에 농부가 옥토 땅에 씨를 뿌려 놓고 잡초 때문에 거의 밭고랑에 앉아서 7, 8월까지 지내야 되듯이 그런 기간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되어서 가을에 잡초들이 서서히 뿌리가 죽고 잎이 죽고 말라 비틀어지는 때와 같습니다. 곡식은 그대로 황금벌판을 이룹니다.

“의인들은 황금벌판 같이 빛나라라.”

아버지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인들은 이 섭리나라에서 빛이 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뛰고 달린 사람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마치 밭에 앉아서 풀을 매듯이 어려움을 이기고 올라온 사람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댈 때는 밭에 있는 곡식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밭을 매야 됩니다. 곡식들이 엉겅퀴와 잡초와 가라지에 묻혀 있을 때는 자기가 마치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뽑다 보면 4월, 5월, 6월, 7월까지 밭을 매게 되고 밭에서 앉아 살다시피 하게 됩니다. 쪼그려 앉아서 밭을 매면 밭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8월달이 되면 잡초들이 제거된 바가 됩니다. 서서히 계절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거둬들인 바가 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밭에 한 생명체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데 엉겅퀴와 악한 것들이 너무 너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악한 것들,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뿌리기도 하고 악한 신앙자들에게 계속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심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멀쩡하고 너무 좋은데 계속 마음이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계속 마음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싱숭생숭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 심판을 받아라!! 마귀야 심판 받아라! 귀신아 심판 받아라! 좋은 밭인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뿌리고 있구나. 나쁜 놈들!

“의인들이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성약 나라입니다. 지금은 성약 나라입니다. 구약 나라가 있고 신약 나라가 있고 성약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성약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성약 역사가 왔습니다. 성약 역사가 이 시대에 왔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성약 역사가 시작된 것을 나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달력을 못 봐서 그렇지 역시 그 날이 명절로 가고 있고, 국경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언제 명절이 돌아와요?” 하고 물어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아니, 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니가 뛰고 놀면 되지 않느냐. 천국은 만드는 것이 아니냐. 명절도 안 놀면 명절같지 않아. 노래부르고 놀아야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만

들고 떡도 만들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도 그것을 모르면 역시 재미가 없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인들은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빛을 발하려고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의 자리에 앉으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지들이 “의인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나 악한 놈들이나 가라지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저들이 잘못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에 공개하고, 방송에 나오게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잘 한다.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하니...” 그러나 그것이 빛이 날 것 같아도 빛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불꽃같이 쳐다보는데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머리 없이 “저들이 잘한다.” 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단상에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미 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봐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세계적으로 전체까지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하시는 것이 두 가지 계신데, 첫째는 의인들을 그렇게 잘 살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1조, 1억 혹이라도 빠질까 그렇게 살피시면서 갇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살피십니다.

그것은 누구에 비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독자를 부모가 살핀다’, ‘애인이 애인을 살핀다’, ‘짝사랑하는 애인이 10년만에 돌아왔는데 그 애인을 살핀다’ 그것도 비유가 안 됩니다.

세상에는 비유들 것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지극히 인생들을 살피시는데 역시 천년 만년동안 그것을 다 말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피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비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애인이 애인을 살피는 것에도 비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애인이 애인을 살피도 365일 동안 그렇게 살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기분 좋을 때는 살피고 기분 나쁠 때는 못 살핍니다. 그러니 거기에 비유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여러분,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말씀이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린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5년 전부터 이 역사를 발견하고 가는데도 너무 아깝다고, 더 못 들어서 환장들인데 여러분은 이제 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의인들을 살피시는데 그렇게 지극히 살피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다해서 살피시더라. 그리고 그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을 다해서 살피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의인이냐구요? 그것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 이야기하다가 본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형제들을 살피는 것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의를 자꾸 행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을 정말로 잘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다루십니다. 누가 다시 말할 수 없게 다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악인들을 심판 안 한다. 악인들을 가만히 놔둔다. 악인들은 악을 쓰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저렇게 둔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봤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너무 세밀하게 살피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감행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모두 갚으리라.”

행한 대로 끝까지 다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뒤집어지게 놀라고 깨닫고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대로 다 갚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는 백도 필요 없어. 누구의 설득도 필요 없다. 내가 행한 대로 기필코 다 갚아버리리라.”

역시 하나님의 보낸 자도 똑같습니다. 그 행한 대로 전부 대해주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아, 하나님께 못 받았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 해주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다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하면 안됩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이 들어가면 신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 이것도 몰랐느냐?” 하면 나만 속쓰러우니까 내가 또 혼 내키게 됩니다. “너 왜 나한테 보고도 않고 해버렸어. 하나님께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두 번째 잘하시는 것이 악인들을 난절하게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마치 가라지 같고 잡초 같아서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몽땅 뽑아서 불에 살라버린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입장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주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살피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고, 악인들은 지극히 행한 대로 갚으사 풀무불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도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게 해주고 악인들은 해같이 뜨거운 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겁지 않습니다. 온도가 3천만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뜨거운 풀무불에 악인들을 집어쳐 넣고, 의인들은 해의 빛이 있지 않습니다. 수천 만리, 수억 만리까지 비취는 그 빛, 그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의인들이 빛나는 모습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악인들이 지옥에 가서도 아마 그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도 빛나니까.

여러분, 요즘 섭리사 사람들이 빛이 납니까? 앞으로 이곳에 와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며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하면 나와 같이 됩니다.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 음식 먹으면 맛있다. 너희들도 먹어봐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아무리 IMF를 맞고 아무리 고통을 받을지라도 잘된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악인들의 고통을 너무 받았고, 악인들이 마음속에 너무 잡초를 뿌리고, 옥토 밭에 너무 잡초를 뿌렸다.”

가라지! 끝끝내 가라지는 가라지로 납니다.

“가라지는 가라! 오곡 곡식은 와라!”

잡초는 노래에도 있는 것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잡초입니다. 잡초인생, 아무 것도 아닌 잡초입니다.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난 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의인들은 무엇입니까? 보화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보화다. 보화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보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문 건축자들이 기둥에 넣는 주춧돌을 버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명칭한 놈들이냐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은 바로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부터 시작해서 집이 중심이 잡혀갑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비유했습니다(마21:42).

전문자들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전문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이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주워다 또 놓아서 신약역사의 큰집을 지었습니다.

나 역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벽적거리며 해봤자 내가 이 시대에 하는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버렸는데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하듯이,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리고 집의 모퉁이 돌을 발견하듯이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그 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이 성약의 나라를 지금 지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5년 동안 펴왔고 계속 펴갈 것입니다. 앞으로 천 년 동안 펴 것입니다.

나는 100살 먹어서 죽을지, 90살 먹어서 죽을지 죽겠지만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영적으로 계속 신약 역사를 펴듯이 역사를 펴 것이고, 이들도 대대손손 펴 것입니다.

예수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을 CD로 수만 장을 녹화해놓고 책도 써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얼굴을 안 보고도 화면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안 나타나도 계속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로 성약 천년사를 만들자고 예수님과 같이 늘 의논하며 만들고 놓고 있습니다.

“몇 만장은 만들어 봐야 천년 동안 한 번씩 돌려서 주일 예배를 볼 수 있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만장만 만들어봐도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잠언도 그래서 만 잠언 이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약 잠언 가지고 구약 시대를 지켜왔고, 신약 잠언 가지고 신약 시대를 지켜왔습니다. 이 시대도 말씀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라지들이 없어져야, 악한 자들이 없어져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악인들은 빛나기는커녕 의인들을 빛나게 하는 데에 가서 풀무불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빛나게 하는 데에 가서 모닥불이 되어야 되고, 가서 타야 됩니다. 기름이 탈 때에 빛이 나오듯이 의인들은 빛만 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빛 좀 발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너무 너무 빛을 잃었는데 이제 악인들 때문에 빛 좀 발하자, 가라지들 때문에 빛 좀 발하자는 것입니다.

더 악심을 먹고 더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낙심치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불을 태우고, 의인들은 그 불빛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태우고, 그 태우는 불빛에 우리 의인들은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잘 깨달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금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아와서 압니다. 악인들, 가라지들, 그 나쁜 놈들, 악한 놈들이 너무 나쁘게 자꾸 말해서 온 민족이 방송하고, 언론들이 방송하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몰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누구는 몰라도 기독교는 그것을 안 했어야 하는데 기독교가 더 앞장서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하였습니다. 깨닫고 보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세계적인 역사를 펴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독교로 오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모아놔다가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모으기밖에 못합니다. 다 이리로 보내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에 모아놓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기독교에서 자꾸 청년들을 모아놔다가 이곳으로 계속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초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전초자입니다. 장로교, 개신교 모두 전초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전초해놓고 그 다음에 전초했으면 이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도바울 같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역사의 생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의인은 빛나리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치우쳐 한 가지로 죄악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나 혹은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 시대는 사망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시대, 구약 시대는 사망권에 있었습니다. 사망권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빛을 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믿고 따라갔으면 바로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의인을 죽인 자요 살인한 자요 잡아준 자요 고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낸 메시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의인이었습니다. 재림 때는 다시 보낸 메시지를 믿고 따라가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자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딱 하나씩 줍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중심한 하나,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 성약 시대 때에는 다시 보낸다는 재림주 하나입니다. 둘이 없고 딱 하나입니다.

전반기의 역사는 세례요한적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의 전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때 전반기의 역사는 세례요한적 역사입니다.

예수님으로 볼 때는 구약 역사는 세례요한적 전반기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기 전에, 보다 이상적인 역사를 하기 전에 보다 전초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씀을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세계, 온 인류의 세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하시고, 의롭게 사는 의인들은 절대로 그들을 다시 빛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한국은 한민족으로서 한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개지랄들을 다 했지만 역시 우리 민족은 참 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도 고통을 겪어서 성질이 나빠졌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못 터트린다. 내가 책임진다. 못 터트린다.” 했습니다. 결국 못 터트리게 되었습니다. 터뜨린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미련했습니다. 핵무기 터트릴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터트리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말만 잘 듣고 산다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핵무

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핵무기를 안 터뜨려도 바람만 한 번 불어도 다 날라가 버립니다.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출게 만들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게 만들고, 한겨울에 추워서 연료비로 왕창 날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절약하면 뭐합니까. 절약한 것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 들면 끝나버리고, 바람 불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음 불안하게 하면 먹고 입는 것이 다 있어도 불안해서 천국이 못 되고 지옥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즐겁게 하는 자라야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해같이 빛나는 일이고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인들은 멸하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심판치 않겠다.” 했습니다.

소돔 땅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심판 받았습니니다. 의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더불어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 열 명이 없었습니다. 소돔 땅에 12만 명이상이 있었는데, 소돔과 그 이웃도시들까지 하면 40만 명이 넘고, 46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인들이 열 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열 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열 명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나올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살려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죽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들이 없으면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고, 어떤 인원이 많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으면 여지없이 심판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바람으로 심판하시고, 병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가뭄으로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이 없으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는 곳은 심판치 않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큰 문제가 또 일어났네요.”

“무엇이냐?”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일본 동경 같은 데는 언젠가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저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중에 수십 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지키는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동안도 해왔으니까.. 동경에 지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런 보고를 하고서 그 때 그들에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는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않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무슨 핏박이 있어도 이기면서 간다고 하는데 이들이 시대의 의인들이 아니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합니다.”

그것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너희 의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마음 변하지 않고 평생 간다면 동경에 지진이 없게 해주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진 없게 해준다고 하셨다. 앞으로 지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지진은 없다.” 했습니다.

결국 그 동안 5년 안에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그곳에 지진이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했지만 나에게 보고했던 이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없다. 안 일어난다. 왜?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겁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랬습니다. 동경 쪽의 섭리사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아무래도 심판하겠다. 너희들 상태를 보니까 좋지 않아.” 그랬습니다. 독일 제자들도 불러놓고, 몇 명을 불러다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까지 큰일나. 미국 전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하신다고 하셨다.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과 아픔의 그 빠져린 고통을 준대. 특히 전쟁의 고통을 준대.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했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의인 때문에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표상으로 삼고 심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의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했습니다. 의인들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좌우되는데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죄인들은 그냥 우연같이 생각합니다. 천만에!! 한번 혼나 보고 싶습니까?

의인들이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여지없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너무 많이 압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경험해봤습니다.

심판이 빗겨 가게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건 왜 났냐?” 고 물어보면 “이래서 났습니다.” 하는데 “하이고, 무지한 인생들이구나!” 합니다. 오죽해야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이런 사건이 왜 났을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났습니다.” 합니다.

“지구촌에 태풍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났다.”, “나무를 다 베어서 일어났다.”, “가물어서 일어났다.” 합니다. 그것도 다 맞습니다. 누가 안 맞다고 합니까. 맞는데 그 현상을 누가 이용해서 감행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행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 아니면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할 때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사람을 멸해가면서 하는 연단이 있습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할 때 사람을 죽이면서 연단 하는 곳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 하나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심판도 모릅니까? 의인들은 압니다. 알아도 말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말하라. 말해버려라. 저 답답한 인생들 모른다. 귀머거리요 소경

이요 병어리요 앓으병이요 식물인간들이 뭘 알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시대를 말씀했습니다. 끝없는 말씀, 한 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면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심판을 안 하십니다.

의인 하나가 있으면 민족까지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명예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육적인 무엇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악인들의 침범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고, 가라지 같은 마음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낸자와 일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나부터도 내가 사람을 한 명 보냈는데 같이 안 하면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 받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와 일체 되어서 같이 먹고 입고 쓰고 하나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심판받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한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왜 가만히 있느냐. 단상에서 심판을 선언하라. 왜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느냐.” 하셨습니다. 단상에서 심판을 하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개미들이 몸으로 기어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물리는 것입니다. 물리고서 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다닥 털고서 불개미들에게 불을 질러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 마귀들, 사탄들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인은 빛나리라!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인은 풀무불에서 빛을 잃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일주일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날마다 부지런히 달려 나와서 듣게 해주시고, 수요일 제단에도 부지런히 와서 말씀을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자들에게 “악인은 심판하니 악인이 될래, 의인이 될래?”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요, 믿는 것이 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심판을 감행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말고 의로움에 처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이곳저곳에 많은 재해가 많이 있는데 지구가 험한 것 되어서, 오래되어 고장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험한 것 되어서 새 것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온전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뜻을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이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감사함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일동안 말씀이 진행될 것이니 하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죄인들이 의인 되게 하고 악한 자가 의인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

<권면의 말씀>

이제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새벽말씀 부지런히 와서 듣고, 악인들도 의인되는 기간이 되고, 또 정신 차리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해와 같이 빛나면서 역사 앞에 기쁨의 천국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모두 마치고 안녕을 고하겠습니다. 주일말씀, 안녕! 네...